

제1회 대학교육정책포럼

1. 주제: “연구중심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2. 일시: 1998. 9. 22(화) 10:00~11:30
3.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4. 주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5. 사회 및 패널리스트
 - 사회: 윤형원(충남대 총장)
 - 패널리스트: 함중환(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설훈(국회의원), 이대순(호남대 총장),
조선제(교육부 차관), 최송화(서울대 총장직무대리),
권영빈(중앙일보 논설위원), 이현청(대교협 사무총장)
6. 참석대상: 대학총장, 기획실(처)장, 관련보직 교수 등
7. 참석인원: 약 170여명
8. 취지
 - 「대학교육정책포럼」은 대교협이 대학교육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학사회와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임.
 - 「제1회 대학교육정책포럼」에서 다룬 “연구중심대학”은 현재 대학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사안임.
 - 특히 교육부가 연구중심대학의 집중육성을 발표한 이후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많은 대학들이 각종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포럼에서는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학교육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임.
9. 패널 발표 요지

- 최송화: 서울대 연구중심대학 안은 교육·연구의 수월성을 추구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임.
- 설 훈: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는 큰 방향에는 동의함.
- 이현청: 연구중심대학의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은 1876년 존스홉킨스대학이 700만불을 기부 받으면서였음. 연구중심대학의 특징은 학생수 구성에서 대학원:학부가 1:1.5나 1:1.2정도이고, 일본의 교토대학이나 동경대학처럼 강좌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예도 있고, 연구비중이 매우 크다는 특성을 지님. 미국에서 대학원중심대학은 125개 정도이고 이중 연구중심대학은 70개교를 꼽을 수 있음. 칼텍, 하버드대, 카네기멜론대, 스탠포드대 등은 각각 대계열화, 연방정부 연구소와의 연계체제, 특화된 연구소 중심 등의 특징을 갖고 있음. 서울대 연구중심대학의 구상은 바람직하나 연구소 중심체제의 연구중심대학이 되어야 하며 우리 나라 전체 대학을 한 경쟁력 강화 기반으로 하여 거점대학들과 연계체제를 강화해야 함.
- 함중환: 연구중심대학의 당위성에는 동의하나, 서울대 집중육성안이 타 대학 총장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임. 또한 2+2제 시행 시, 타 대학생이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 새로운 입시 열풍이 불 것도 우려됨. 그러나 '서울대만 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임. 더 이상 공평분배 지원은 없어야 함.
- 조선제: 교육개혁의 두 축은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고등교육의 고도화임. 연구중심대학에 대해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으며, 이제 시작일 뿐임. 연구중심대학 지원 예산은 일반대학 지원 예산과는 별도로 2,5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5년간 1조 2,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
- 이대순: 연구중심대학과 대학원중심대학의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 두 개념을 정책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대학원중심대학은 전문대학원 중심으로 지역거점대학 형식으로 특성화시켜 분산시켜야 함.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여 대학원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함. 그리고 이 중에서 극히 소수의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할 수도 있을 것임.
- 권영빈: 서울대 연구중심대학 안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논의 전개방식이 잘못

되었다는 점임. 서울대 내부의 의견 통일이나 합의도출에 어려움(자연·인문·사회대 등 기초 학문 계열 교수들의 반대)을 겪은 이 안은 국제적 호환성 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얻음.

- 국립대학 전체에 대한 발전안 없이 서울대에 집중지원이 가능한가?

- 설 훈: 이번 연구중심대학 안은 전국 대학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함. 마스터플랜을 갖추고 나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구중심대학 지원 예산은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함. 일반대학 지원예산을 전용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김.
- 이대순: 대학들의 균등 발전도 중요함. 몇 대학에 지원 예산이 편중되고 나머지 대학이 고사하는 식은 곤란함.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예산상 연구비가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 전체의 연구비 지원체계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국가적으로, 대학에 배당되는 연구비 비율이 해마다 감소 추세임.
- 최송화: 내부적 합의 문제는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큰 틀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학사과정 연한 조정에 관련한 이견들임. 또한 2+2체제에서 학부과정의 교육은 전공 선택기로서 창의적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간임.
- 조선제: 교육부는 대학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겠으나 그 이상은 각 대학에서 알아서 할 일임. 각 대학에 지원금이 1/n씩 분배되어야 한다는 이식은 용납할 수 없음.
- 윤형원: 이제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해 보면, 연구중심대학 지원은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음. 고등교육계 전체가 와해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끝.